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지의 구조적 관계

최인우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2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4.0을 이용하여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 모두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넷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년 직장인들 창업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경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회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 발견 단계에 따른 기회탐색, 인식, 평가, 활용에 대한 manual 작성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제시하고 기회인식을 통해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직장인의 창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의 제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기회인식, 창업의지

1. 서론

중장년층의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창업은 주목을 끄는 이슈 중의 하나이다. 중장년층은 가계 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식과 부모를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따라 중장년층의 취업 공간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그로 인한 중장년층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책의 대안 중에 하나로 창업에 대한 중요도가 증대하고 있다(양경애·하규수, 2020).

최근 중장년층의 퇴직이 많아지며 창업에 관심을 가진 중장년층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표자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가장 많은 34.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 27.4%, 60대 22.0%, 30대 9.8%, 70대 이상 5.2%, 20대 이하 1.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 2022).

중장년층은 직장에서의 퇴직 시점이 빨라지고, 재취업은 쉽지 않지만 인간 수명의 증가로 사회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과 활기찬 삶을 위해 창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들과 노후준비를 고려하면 이들에게 창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한다(한만선, 2020).

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은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40대 이상 숙련 인력한테 창업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젊은 창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중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가 강조됨에 따라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인 실정이다(양경애·하규수, 2020).

중소벤처기업부는 만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 단독저자,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consultancy@naver.com

· 투고일: 2022-09-04

· 1차 수정일: 2022-10-13

· 2차 수정일: 2022-10-21

· 3차 수정일: 2022-10-24

· 게재확정일: 2022-10-25

과 준비공간 및 자문, 경영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강병승, 2020). 장년의 창업역량은 경험에 근거하고 훈련으로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역량을 개발 하도록 정부와 가족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Wagener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역량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비교를 통해 창업역량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직장인의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창업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역량 중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이 이들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역량을 보유한 직장인을 창업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중장년

중장년은 인간 발달의 연속적 변화 과정의 일부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고 환경적, 심리적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지므로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Ballard & Morris, 2003; 임선미, 2015).

중장년기를 시점으로 구분해보면 일반적으로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는 전환점이며, 유년기·청년기를 거쳐 인생 전반에 대한 개방적인 수용과 자기 확대가 이루어지며, 성숙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 노년기로의 준비 단계이다(임선미, 2015).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준비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유효순, 2016).

연령측면에서의 구분은 Erickson(1972)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20세부터 40세까지를 장년기로,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고, Havighurst(1972)는 생애발달주기 6단계에서 30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5세부터 65세까지를 중장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창업역량

역량은 사람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Man et al., 2008),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로 정의된다(Baum et al., 2001).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로써 측정가능하고(Parry, 1996), 연습, 학습, 훈련을 통해 배우고 획득가능하며(Volery et

al., 2015). 평균 성과자와 우수 성과자를 구분하는 기술, 지식, 특성이다(Mirabile, 1997).

역량 중 창업역량은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등 기업 경영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직무에서 효율적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Prahalad, & Hamel, 1990). 최근에는 창업역량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한 개인적인 특성이며(정두식, 2016),

창업역량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Chandler & Jansen(1994)은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기능적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텔파이 연구에서(Morris et al., 2013) 13가지의 기업가적역량을 확인하였다. 창업역량의 구성요소는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창업역량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 요소
Chandler & Jansen(1994)	기업가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 기능적역량
Ahmad et al.(2010)	개념화역량, 전략적역량, 기회역량, 학습역량, 관계역량, 윤리적역량, 개인적역량, 윤리적역량
Morris et al.(2013)	기회인식, 기회평가, 위험관리/완화, 강력한 비전 전달, 끈기/인내, 창의적 문제해결력/상상력, 자원활용, 게릴라스킬, 가치창출, 초점을 유지하면서도 적응하는 능력, 자기효능감, 회복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
서성렬(2019)	창의적역량, 기술적역량
이혜영·김진수(2019)	기회인식역량, 관리적역량, 기술적역량, 전략적역량, 관계역량
강병승(2020)	경영역량, 기업가역량, 대인관계역량
한만선(2020)	비즈니스역량, 기술적역량, 자금조달역량

출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 재정리.

창업역량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으로 가장 많이 관리역량, 창의역량 및 기술적역량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창의역량을 확장된 기술능력의 혁신의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창업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성공의 핵심요인인 경험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역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적시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더불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금조달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독립변수인 창업역량의 하위요인으로는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을 선정하였다.

2.2.1. 관리역량

관리역량은 창업가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기만, 2018). 특히 창업기업은 조직의 구조화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결합하는 관리역량이 매우 중요하다(이준구, 2021).

2.2.2. 기술역량

기술역량은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으로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역량이다(Burgelman et al, 1996).

기술은 제품을 개발 및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용화된 지식으로, 기술역량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술 문제를 해결하며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서성렬, 2019). 기술역량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창업가의 능력이다(한만선, 2020).

2.2.3. 비즈니스역량

경영 경험 또는 직장 경험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지식이 있는 경우 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Staniewski, 2016). 이전 경험에서 얻은 지식은 미래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Farmer et al., 2017). 과거의 업무경험이나 창업 경험, 또는 업종과 무관하게 창업에 대한 경험은 창업자에게 풍부한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 및 현장 지식을 제공해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난관을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감소시켜줄 것이며,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영미, 2018).

한만선(2020)은 비즈니스 역량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2.2.4. 자금조달역량

창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필요하며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Politis et al., 2011). 자금조달역량은 창업 기업이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내·외부로부터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며, 창업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장영미, 2018). 그러므로 자금은 창업은 물론 기업의 존립자체를 위한 기본요소이기에 자금조달역량은 창업가역량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한만선, 2020).

2.3. 창업기회인식

창업은 사업기회의 발견과 발견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이다(Shane, 2003), 기회인식의 구성 요소와 단계 별 특징을 살펴보면 Lumpkin et al.(2001)은 기회인식을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프로세스 모

델로 제시하였다. Lindsay & Craig(2002)는 기회인식의 3단계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개념으로 전환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회를 인식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기회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De Koning(2003)은 기회 개발의 사회 인지적 프레임워크에서 기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맥락의 다른 부분에서 네 가지 유형의 인지 활동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인지 활동은 각각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Morris et al.(2013)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를 창업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창업의 핵심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창업기회인식은 기업가가 스스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며(강재학, 2016), 실행 가능한 창업에 대하여 정보를 포착하여 창업에 적용하는 정도이다(강병승, 2020).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외부 여건 속에서 시장의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장현철·김중성, 2021).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지각된 행동통제변인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들 수 있다(Ajzen, 1991).

또한 창업이벤트 모델(SEE: Shapero's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소망성(Perceived Desirability),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 지각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을 강조하였다(Shapero & Sokol, 1982).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이며(Crant, 1996), 새로운 기업 설립에 대한 행동, 철학, 태도를 나타낸다((Morris & Sexton, 1996).

창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창업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창업가 개인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창업의지라 한다(이상길, 201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창업의지를 창업역량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3.1.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는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는 단순매개모형에 근거하여,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포함한 관계에 대한 가설과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을 매개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 등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3.1.1.1.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채연희(2017)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관리능력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고영훈(2017)의 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술적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적역량의 하위변수인 제품개발과 기술혁신능력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가의 창업역량 중 기술적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역량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성렬, 2019). 김영태·허철무(2021)의 연구에서도 기술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즈니스 역량은 창업자가 갖고 있는 창업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므로 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두식(2016)은 창업가 특성 및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실증분석결과, 관리경험, 직장경험, 창업경험, 교육경험 등은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영미(2018)는 시니어의 창업역량의 경험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권 외(2012)는 호텔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리사들의 창업자금 준비정도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훈(2014)은 국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은 창업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2017)의 실증연구에서 자금조달자신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H1: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창업역량의 관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창업역량의 기술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창업역량의 비즈니스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창업역량의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2.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유사한 창업역량과 창업인식 간의 관계를 추론하여 가설 설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강병승(2020)의 연구에서 관리역량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Zapkau et al.(2015)은 이전 근무경험인 비즈니스역량을 통해 비즈니스 시작프로세스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향상시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asson & Wadeson(2007)은 기회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업기회는 가용 가능한 경제력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자금조달 능력은 창업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임아름(2015)은 청년 창업가의 역량 특성인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은 기회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있어서 창업가의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강재학, 2016; 강병승, 2020; 박철우·강경란, 2021).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정의된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H2: 창업역량은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창업역량의 관리역량은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창업역량의 기술역량은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창업역량의 비즈니스역량은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창업역량의 자금조달역량은 창업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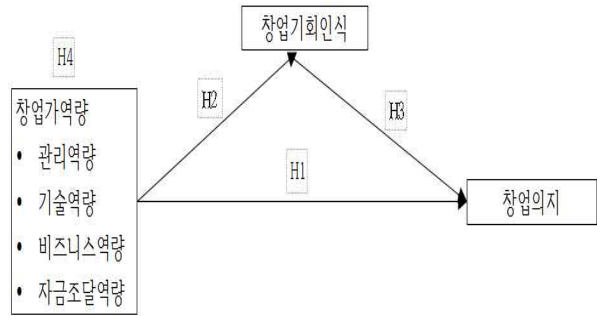
3.1.1.3.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Shane & Nicolaou(2015)의 연구에서 창업기회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강재학(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충규·하환호(201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회인식과 창업의도의 관계 연구에서 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 기회인식이 증가하면 창업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관·장규순(2018)의 연구에서 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량형·김응규(2019) 연구에서도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강병승(2020)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나 창업기회가 많아질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장현철·김중성(2021)의 연구에서도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H3: 창업역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4. 매개효과

앞의 변수 간의 관계로부터 창업기회인식의 매개역할에 대한 근거 제시 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창업기회인식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임아름(2015)은 기회발견이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행동 간과 창업성과 간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강재학(2016)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정관·장규순(2018)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 간의 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원희(2019)는 기업가적 기민성과 창업의지 관계를 창업기회인식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강병승(2020)은 기회인식이 창업지원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H4: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4.1: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4.2: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기술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4.3: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비즈니스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4.4: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할 것이다.

3.1.2. 연구모형

위의 가설에 근거하여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역량(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반기업, 공공기관, 소상공인을 30여 개를 표본 집단으로 3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중·장년층의 직장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Naver Office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약15일간(2022. 07. 16.~2022. 07. 30.) 진행하였다. 배포된 250중 총 231부기 수집되었으며 그 중 결측값이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222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Win Ver. 22.0과 PROCESS macro v4.0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도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으로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측정하였고,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8)의 단순매개모형인 Model 4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론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은 Bootstrap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구성개념은 특정 사실로부터 얻은 일련의 추상적 의미 또는 특성이며 특정 연구나 이론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이나 잠재변수를 경험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본래의 속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내는 것이다(이훈영, 2012). 구성개념은 여러 개의 다양하게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한 조작적 정의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3.3.1. 창업역량

3.3.1.1. 관리역량

관리역량은 구성원들과 같이 일하고, 서로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고(Pavett·Lau, 1983), 창업가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이기만, 2018). 관리역량은 구성원을 잘 통솔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업가의 능력으로 리더십 능력,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직원들과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능력 등으로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다(이준구, 2021).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3.3.1.2. 기술역량

기술역량은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이다(Burgelman et al, 1996).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며(한만선, 2020),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역량으로 필요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준구, 2021).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역량능력으로 정의한다.

3.3.1.3. 비즈니스역량

경영 경험 또는 직장 경험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지식이 있는 경우 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Staniewski, 2016), 사전에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을 쉽게 해준다(이기만, 2018).

한만선(2020)은 비즈니스 역량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가 갖고 있는 창업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능력으로 정의한다.

3.3.1.4. 자금조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창업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외부로부터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다(장영미, 2018).

창업가역량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한만선, 2020).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정과 창업이후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능력으로 정의한다.

3.3.2. 창업기회인식

기회인식은 잠재적인 수익원이나 벤처로의 복귀를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된 조건이나 간과된 가능성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Morris et al., 2013). 창업기회인식은 기업가가 스스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고(강재학, 2016), 실행 가능한 창업에 대하여 정보를 포착하여 창업에 적용하는 정도이다(강병승, 2020).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시장의 변화된 상황과 가능성 등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성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3.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스스로 개인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이며(오해동 외, 2016),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고 새로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이다(장영미, 2018).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을 계획하여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는 신념의 정도이며(안희수·양동우, 2019),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실현하기 위해 창업행동을 완수하려는 계획된 의도나 열정이다(안은주·양동우, 2020).

본 연구에서는 예비 사업가가 창업기회를 인식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한다.

3.3.4. 측정도구

조사대상자들의 배경변수 별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주거지역, 직업, 전공분야, 주택 소유 형태, 직장경력, 재산 규모, 월 평균 가구 소득, 희망 창업 업종 등을 세부항목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은 명목 척도로 연속형 변수들의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에 설문지 구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도구

변수	문항수	출처
창업역량	관리역량	6
	기술역량	5
	비즈니스역량	4
	자금조달역량	5
창업인식기회	5	이기만(2018), 서성렬(2019), Daliman et al.(2019), 한만선(2020) Minimol(2021)
창업의지	6	강재학(2016), Fust et al.(2016), 강병승(2020), 장현철·김종성(2021), Bapoo et al.(2022)
인구통계학적변수	12	Liñán & Chen(2009), 김지혜(2018), 정수성·김도현(2019), Nielsen et al.(2019)
변수	문항	
관리역량	1. 직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2.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재주가 있다. 3. 평소 직원들에게 비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4. 나는 직원들의 조직생활과 관련된 일에 잘 알고 있다. 5. 직원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다. 6. 능력 있는 직원에게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기술역량	1.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2. 경쟁자와 비교하여 기술혁신 능력이 뛰어나다. 3.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 관련분야에 적용되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5.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비즈니스역량	1. 창업에 필요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 창업하려는 업종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3. 창업하려는 업종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4.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자금조달역량	1.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고만해 본 적이 없다. 3. 언제든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다. 4.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변에서 조달할 능력이 있다. 5. 창업초기 자금조달이 다소 어렵더라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다.
창업기회인식	1.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다. 2.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도 잠재적 사업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 3.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4. 사업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5. 유망하고 좋은 사업을 분별할 수 있다.
창업의지	1. 창업가(또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직업적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3. 창업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5. 언젠가는 창업을 할 강력한 의사가 있다. 6. 창업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3.4.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 222명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수별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주거지역, 직업, 전공 분야, 주택 소유 형태, 직장경력, 재산 규모, 월 평균 가구 소득, 희망 창업 업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77.9%; 173명)가 여자(22.1%; 49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5~55세 미만이 46.4%(103명), 55~65세 미만이 36.0%(80명), 35~45세 미만이 17.6%(39명)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45~65세 미만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 분포는 기혼이 88.3%(198명)로 나타나 미혼 7.7%(17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46.4%; 103명), 대학교 졸업(45.5%; 101명) 전문대학교 졸업(8.1%; 18명)의 순서로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이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 분포는 서울지역이 가장 많았고(69.8%) 다음으로 경기·수도권지역(32.1%)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사무직(42.8%; 95명), 전문직(38.3%; 85명), 기타(9.5%; 21명), 공무원(5.0%; 11명), 자영업(4.5%; 10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공분야는 법·상경계열(40.1%; 89명), 인문사회계열(26.1%; 58명), 이공계열(26.1%; 58명), 예·체능계열(7.2%; 16명), 기타(1.4%; 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보유, 전세, 월세,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경력은 25~30년 이하(9.0%; 32명)가 가장 많았고 5년 이하(6.3%; 14명)가 가장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년 이상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는 10~20억 원 미

만(35.6%; 79명), 20~50억 원 미만, 5~10억 원 미만, 3억 미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 분포는 300~500만 원 미만(44.1%; 98명)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0~700만 원 미만이 크게 나타났고 300만원 미만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희망 창업 업종은 지식/서비스업, 유통업, ICT,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①남성	173	77.9
	②여성	49	22.1
연령	①35~45세 미만	39	17.6
	②45~55세 미만	103	46.4
	③55~65세 미만	80	36.0
결혼 상태	①기혼	198	88.3
	②미혼	17	7.7
	③기타	9	4.0
학력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0	0.0
	②전문대학교 졸업	18	8.1
	③대학교 졸업	101	45.5
	④대학원 졸업	103	46.4
주거지역	①서울지역	155	69.8
	②경기수도권지역	49	32.1
	③기타 지방지역	18	8.1
직업	①사무직	95	42.8
	②전문직	85	38.3
	③자영업	10	4.5
	④공무원	11	5.0
	⑤기타	21	9.5
전공분야	①이공계열	56	25.2
	②법·상경계열	89	40.1
	③인문사회계열	58	26.1
	④예·체능계열	16	7.2
	⑤기타	3	1.4
주택 소유 형태	①자가 보유	196	88.3
	②전세	18	8.1
	③월세	5	2.3
	④기타	3	1.4
직장 경력	①5년 이하	14	6.3
	②6~10년 이하	16	7.2
	③11~15년 이하	22	9.9
	④16~20년 이하	18	8.1
	⑤21~25년 이하	33	14.9
	⑥26~30년 이하	66	29.7
	⑦31년 이상	53	23.9
재산규모	①3억 원 미만	19	8.6

	②3~10억 원 미만	49	22.1
	③10~20억 원 미만	79	35.6
	④20~50억 원 미만	75	33.8
	⑤50억 원 이상	0	0.0
월 평균 가구소득	①300만 원 미만	21	9.5
	②300~500만 원 미만	98	44.1
	③500~700만 원 미만	58	26.1
	④700~1,000만 원 미만	45	20.3
	⑤1,000만 원 이상	0	0.0
희망 창업 업종	①제조업	14	6.3
	②ICT	16	7.2
	③유통업	45	20.3
	④지식/서비스업	133	59.9
	⑤건설업	9	4.1
	⑥기타	5	2.3

3.5.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신뢰성은 특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을 나타낸다(이훈영,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상관자승화(단순상관자승화+부분상관자승화)로 계산되는 KMO 표본 적절성 측정치를 통해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였고 KMO 값이 .6이나 .7 이상 이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Kaiser, 197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KMO 측정치는 .9 이상(.932)으로 나타나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변수 쌍의 상관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표본의 상관행렬이 0이 아님을 검증함으로써 변수들의 선형성을 파악하는데 이를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행렬 상의 모든 상관들이 유의적이면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타당한 data임을 말한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변수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타당한 data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인회전은 배리맥스로 지정하였고 공통성 .5 이상, 그리고 요인적재량 .5 이상으로 한 요인선정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1보다 큰 고유값을 가진 여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어 <표 3>에 제시되었고, 분석된 요인모델의 총 누적설명변량은 75.770%로 나타났다.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요인 값으로 변환하여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표 3> 탐색적요인분석

	요인					
	창업의지	관리역량	자금조달역량	기술역량	기회인식	비즈니스역량
창업의지5	.866	.129	.088	.071	.123	.102
창업의지4	.831	.041	.208	.034	.149	.185
창업의지2	.829	.008	.219	.084	.207	.139
창업의지3	.761	.058	.208	.066	.309	.195
창업의지6	.743	.275	.073	.078	.098	.181
관리역량5	.104	.789	.101	.271	.251	.183
관리역량2	.135	.781	.152	.240	.184	.124
관리역량1	.128	.773	.091	.291	.212	.140
관리역량4	.087	.751	.059	.185	.231	.166
관리역량3	.074	.680	.149	.315	.221	.169
자금조달역량3	.131	.088	.863	.115	.165	.100
자금조달역량4	.139	.123	.808	.135	.212	.168
자금조달역량2	.122	.045	.775	.076	.002	-.043
자금조달역량1	.154	.107	.755	.131	.067	.318
자금조달역량5	.229	.151	.751	.170	.242	.161
기술역량3	.044	.209	.156	.795	.139	.131
기술역량4	.018	.225	.230	.790	.078	.193
기술역량2	.080	.216	.152	.778	.302	.081
기술역량5	.115	.385	.152	.717	.154	.239
기술역량1	.137	.320	-.009	.686	.195	.190
기회인식2	.207	.250	.182	.201	.765	.109
기회인식3	.219	.291	.157	.233	.734	.172
기회인식1	.181	.292	.166	.149	.690	.181
기회인식4	.347	.366	.130	.203	.623	.220
기회인식5	.336	.236	.212	.270	.623	.202
비즈니스역량2	.193	.169	.202	.187	.094	.861
비즈니스역량3	.218	.173	.167	.178	.115	.844
비즈니스역량4	.225	.189	.141	.183	.246	.753
비즈니스역량1	.242	.273	.112	.251	.290	.694
고유값	12.633	3.128	2.269	1.639	1.250	1.054
설명변량	43.562	10.787	7.826	5.651	4.311	3.633
누적설명변량	43.562	54.349	62.175	67.826	72.137	75.770

KMO 측도=0.932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5215.997, 자유도=406, p=0.000

본 연구는 연구모형 내 모든 변수들을 동일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되어 연구의 타당성을 침해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Harman's one-factor 검증(Podsakoff et al., 2003)을 사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첫 번째 요인에 의해 추출된 총 분산이 설명변량이 50%를 상회하면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에 의해 추출된 분산은 권장된 한계점인 50%보다 작은 43.562%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데이터의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개념타당성 분석으로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표준적재값이 .5 이상인 경우 개념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측정항목의 표준적재값이 모두 .5 이상임으로 개념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수렴타당성에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일반적으로 .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준의 구성이라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변수의 개념신뢰도가 모두 .8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는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분산의 크기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추출지수는 .5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판별타당도는 각 변수의 분산추출지수와 결정계수(측정항목의 상관계수를 제공한 값)를 비교하여 판별한다. 결정계수가 각 잠재변수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작으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결정계수는 .122~.533 사이에 있으며 모두 각 변수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확인적요인분석

구성 개념	변수	표준 적재치	오차	t값	CR	AVE	
창업 역량	관리역량	관리역량1	.854	.187	-	.921	.650
		관리역량2	.833	.217	15.630		
		관리역량3	.766	.343	13.665		
		관리역량4	.761	.329	13.527		
		관리역량5	.894	.137	17.655		
		관리역량6	.505	.611	7.871		
	기술역량	기술역량1	.748	.297	-	.928	.721
		기술역량2	.810	.233	12.267		
		기술역량3	.784	.299	11.838		
		기술역량4	.829	.263	12.586		
		기술역량5	.876	.180	13.364		
	비즈니스역량	비즈니스역량1	.798	.393	-	.905	.706
		비즈니스역량2	.942	.171	16.954		
		비즈니스역량3	.925	.201	16.578		
		비즈니스역량4	.795	.490	13.399		
	자금조달역량	자금조달역량1	.785	.421	-	.885	.576
		자금조달역량2	.640	.792	9.858		
		자금조달역량3	.867	.310	14.282		
		자금조달역량4	.870	.284	14.329		
		자금조달역량5	.854	.298	14.013		
	창업 기회 인식	창업기회인식1	.751	.281	-	.928	.721
		창업기회인식2	.804	.262	12.337		
		창업기회인식3	.849	.225	13.119		
		창업기회인식4	.853	.233	13.182		
창업기회인식5		.817	.288	12.557			
창업 의지	창업의지1	.759	.427	-	.904	.612	
	창업의지2	.884	.269	14.070			
	창업의지3	.868	.299	13.765			
	창업의지4	.841	.446	13.258			
	창업의지5	.808	.469	12.655			
	창업의지6	.713	.613	10.938			

3.6.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이란 설문지인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내적일관성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뢰성 평가방법이다(이훈영, 2012).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내적일관성법에서는 신뢰도 평가를 위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8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표 5>에 제시된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는 .9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신뢰도 분석

변수	하위변인	Cronbach's α
창업역량	관리역량	.910
	기술역량	.905
	비즈니스역량	.923
	자금조달역량	.900
창업기회인식		.908
창업의지		.930

IV. 분석 결과

4.1.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상관계수에 의해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가 설명되는데 일반적으로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상관관계크기가 매우 크고, $\pm 0.61 \sim \pm 0.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pm 0.41 \sim \pm 0.60$ 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pm 0.21 \sim \pm 0.40$ 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pm 0.00 \sim \pm 0.20$ 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이일현, 2014). <표 6>에서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중 $\pm 0.81 \sim \pm 1.0$ 범위에 속한 계수는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정(+)의 선형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	창업기회인식	창업의지
관리역량	1					
기술역량	.665**	1				
비즈니스역량	.524**	.526**	1			
자금조달역량	.360**	.402**	.439**	1		
창업기회인식	.672**	.588**	.577**	.480**	1	
창업의지	.351**	.297**	.502**	.429**	.578**	1

**p<.001

4.2. 가설검정

창업역량(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단일 매개변수가 포함된 단순매개모형 기반으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였다. 도출된 가설에 대한 검정은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창업기회인식을 경유하는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역량의 간접효과 등의 검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으로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이용하였다. 10보다 작은(4.754 이하) VIF 결과로 인해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방향성 연구 가설에는 단측검정을 비 방향성 가설에는 양측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모든 통계 package는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양측검정의 p값을 산출해주기 있기 때문에 단측검정의 유의성은 산출되는 p값의 1/2로 검정해야 한다(이학식, 2012).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은 모두 양방향 가설이므로 SPSS에서 제시된 유의확률의 1/2로 검정하였다.

Andrew(Hayes, 2018)의 단순매개모형인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10,000회 반복하여 Bootstrap 표본을 추출하였고 표본들의 편차수정 95% 신뢰구간 Bootstrap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이 경우 검정 방법은 Bootstrap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변수 중 창업의지의 평균차이 분석을 통해 평균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난 재산규모와 월평균 가구소득의 변수를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4.2.1.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창업역량 하위변수인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이 비즈니스역량(B=.354, p=.000)과 자금조

달역량(B=.290, p=.000)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리역량(B=.099, p=.167), 기술역량(B=-.114, p=.141)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1.3과 H1.4는 지지되었고 가설 H1.1, H1.2는 기각되었다.

표준화계수(β) 비교를 통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비즈니스역량(β =.372)이 자금조달역량(β =.270)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의 총 분산을 38.7% 설명하고 있다(F=13.305, R²=.387).

<표 7>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			
	B	β	t	VIF
(constant)	1.236		3.571 ***	
D.재산.3-10억	.850	.356	3.431 ***	3.705
D.재산.10-20억	.464	.225	1.912 *	4.745
D.재산.20-50억	.340	.163	1.398	4.660
D.소득.3-5백만	-.313	-.157	-1.420	4.216
D.소득.5-7백만	-.686	-.304	-3.019 **	3.496
D.소득.7-10백만	-.292	-.119	-1.222	3.247
관리역량	.099	.074	.967	2.004
기술역량	-.114	-.085	-1.079	2.117
비즈니스역량	.354	.372	5.353 ***	1.663
자금조달역량	.290	.270	4.235 ***	1.395
F	.387			
F	13.305 ***			

*p<.05, **p<.01, ***p<.001

4.2.2.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창업역량 하위변수인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기회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이 관리역량(B=.419, p=.000), 기술역량(B=.124, p=.034), 비즈니스역량(B=.159, p=.000) 및 자금조달역량(B=.155, p=.000)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기회인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2.1, H2.2, H2.3 및 H2.4는 지지되었다.

표준화계수(β) 비교를 통한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관리역량(β =.408), 비즈니스역량(β =.219), 자금조달역량(β =.189), 기술역량(β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역량은 창업기회인식의 총 분산을 56.7% 설명하고 있다(F=27.670, R²=.567).

<표 8>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인식			
	B	β	t	VIF
(constant)	.517		2.329**	
D.재산.3-10억	.153	.084	.959	3.705
D.재산.10-20억	.098	.062	.629	4.745
D.재산.20-50억	.078	.049	.500	4.660
D.소득.3-5백만	-.043	-.029	-.307	4.216
D.소득.5-7백만	.010	.006	.071	3.496
D.소득.7-10백만	-.095	-.050	-.616	3.247
관리역량	.419	.408	6.370***	2.004
기술역량	.124	.121	1.834*	2.117
비즈니스역량	.159	.219	3.758***	1.663
자금조달역량	.155	.189	3.532***	1.395
R^2	.567			
F	27.670***			

*p<.05, **p<.01, ***p<.001

4.2.3.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역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창업역량과 독립적으로 창업기회인식(B=.626, p=.000)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기회인식이 증가하면 창업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3은 지지되었다. 이는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한다.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의 총 분산을 48.4% 설명하고 있다(F=17.881, R²=.484).

<표 9>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			
	B	β	t	VIF
(constant)	.916		2.840**	
D.재산.3-10억	.755	.316	3.308**	3.721
D.재산.10-20억	.404	.195	1.805*	4.754
D.재산.20-50억	.292	.140	1.303	4.665
D.소득.3-5백만	-.287	-.144	-1.411	4.218
D.소득.5-7백만	-.692	-.307	-3.313**	3.496
D.소득.7-10백만	-.234	-.095	-1.061	3.253
관리역량	-.160	-.119	-1.559	2.390
기술역량	-.191	-.142	-1.950*	2.150
비즈니스역량	.255	.268	4.062***	1.775
자금조달역량	.194	.180	2.990**	1.477
창업기회인식	.619	.473	6.278***	2.311
R^2	.484			
F	17.881***			

*p<.05, **p<.01, ***p<.001

4.2.4.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와 간접효과는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의 특수한 경우이지만 간접효과를 매개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Bootstrap 표본 수를 10,000개로 설정하고 편의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간접효과는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독립변수가 한 단위 차이 날 때 발생하는 종속변수의 차이를 계량화 한 것이다.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PROCESS에서는 다중 독립변수가 포함된 매개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정 독립변수(관리역량)를 독립변수로 지정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공변량(통제변수)으로 설정하여 첫 번째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특정 독립변수(기술역량)를 독립변수로 저장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저장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공변량들을 포함한 단순매개분석을 독립변수의 수만큼 4번 실시하였다. 또한 Bootstrap 신뢰구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Bootstrap sample수를 10,000번으로 동일하게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은 네 가지 독립변수들의 간접효과를 얻었다.

<표 10>에서와 같이 관리역량→창업기회인식→창업의지의 간접효과 크기는 .260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134 .41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역량→창업기회인식→창업의지의 간접효과 크기는 .091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05 .190]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역량→창업기회인식→창업의지의 간접효과 크기는 .107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53 .176]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역량→창업기회인식→창업의지의 간접효과 크기는 .087로 나타났고 Bootstrap 신뢰구간 [.026 .163]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4.1, H4.2, H4.3 및 H4.4는 지지되었다. 이는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정 결과의 의미는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을 경유하여 창업역량의 요인들이 한 단위 증가하면 창업역량이 창업기회인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를 증가시켜 창업역량의 요인이 한 단위 증가하면 창업역량의 요인들이 창업기회인식을 경유하여 창업역량 요인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창업의지가 각각 .260, .091, .107, .087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창업기회인식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역량의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면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역량의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관리역량→기회인식→창업의지	.260	.134	.414
기술역량→기회인식→창업의지	.091	.005	.190
비즈니스역량→기회인식→창업의지	.107	.053	.176
자금조달역량→기회인식→창업의지	.087	.026	.157

주) Boot=Bootstrapping; LLCI(신뢰구간 하한 값)=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신뢰구간 상한 값)=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역량이 창업 기회인식을 매개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이 높아질수록 정(+)의 방향으로 창업의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llam et al.(2014)의 연구와 서성렬(2019), 김영태·허철무(202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인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각각된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중·장년의 직장인들은 청년들과는 상이하게 창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를 위한 관리역량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전문성이나 기술혁신 같은 기술역량은 outsourcing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들 보다는 경험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업역량의 모든 하위변수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역량이 높아질수록 정(+)의 방향으로 창업기회인식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창업역량 중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기회인식이 커질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의 직접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지만 관리역량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 첫째, 창업역량과 창업기회발견을 이용한 창업의지의 Framework을 작성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의 선행요건 중 하나인 창업역량 간의 차이를 구분하여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창업의지에 선행조건으로 창업기회의 발견이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년 직장인들은 창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를 위한 관리역량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전문성이나 기술혁신 같은 기술역량은 outsourcing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들 보다는 경험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장년 직장인들 창업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합 경험에 대한 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중·장년 직장인들은 창업을 위한 기회 발견을 위해서는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고 기술 부분은 중요하지만 제3자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발견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 발견 단계에 따른 기회탐색, 인식, 평가, 활용에 대한 manual 작성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년 직장인한테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를 위한 관리역량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전문성이나 기술혁신 같은 기술역량은 outsourcing할 수 있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유추되지만 기회발견을 통해서 창업으로 이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제시하고 기회인식을 통해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직장인의 창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의 제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창업역량의 하위변수가 창업역량의 전부를 대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역량의 scope를 확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창업기회인식 외의 제3의 매개변수를 발굴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매개모형을 사용했으나 다른 매개변수를 도입한 다중매개모형에 대한 연구나 조절변수를 도

입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절변수를 도입하여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혼합된 조건부과정모형의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강재학(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고영훈(2017). 전략적 사고 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량형·김응규(2019). 대학생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4(2), 57-83.

김영태·허철무(2021).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2), 109-121.

김지혜(2018). *한중대학생의 주관적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성호(2017).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철우·강경란(2021). 앙트러프러너십과 디지털역량이 취업, 창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2), 35-54.

변충규·하환호(2018).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패턴이 기회인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2), 103-123.

서성렬(2019).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안은주·양동우(2020). 직장인의 직무불안정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2(3), 275-304.

안희수·양동우(2019). 기업가적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인식의 조절효과와 함께. *한국창업학회지*, 14(6), 378-410.

양경애·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45-55.

오해동·최지연·노진표(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흡스태드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35-48.

유효순(2016). *중장년층의 가족관계 특성,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기만(2018).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 준비성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상권·조춘봉·채규진(2012). 호텔 조리사들의 경력, 심리적 특성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외식경영연구*, 15(4), 257-275

이상길(2018).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이일현(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이재훈(2014). 국내 청년층의 창업인식 실태와 증대방안: 청년층의

직업관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1-8.

이정란·장규순(2018).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43-60.

이준구(2021). *창업가 역량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 창업지원기관 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학식(2012). *회귀분석* 서울, 집현제.

이혜영·김진수(2019).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14(5), 13-24.

이훈영(2012).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창람.

임선미(2015).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와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임이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장영미(2018). *시니어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장현철·김중성(202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43-55.

정수성·김도현(2019). 군 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5), 141-157.

정두식(2016). 창업가 특성 및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9(4). 1565-1586.

창업진흥원(2022).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Retrieved (2022. 08. 21)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2745

채연희(2017). 대학생의 기업가적역량이 취업가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실패인식의 조절효과. *한국경영교육학회* 32(4), 165-183.

한만선(2020). *중장년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사회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한원희(2019). *대학 창업교육과정 만족도가 기업가적기회인식,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Ahmad, N. H., Ramayah, T. & Wilson, C., Kummerow, L.(2010). Is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business success relationship contingent upon business environment? A study of Malaysia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3), 182-203.

Ahn, E. J., & Yang, D. W.(2020).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nd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Shapero's Entrepreneurial Event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2(3), 275-304.

Ahn, H. S., & Yang D. W.(2019).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Startup Support System, *JKES*, 14(6), 378-410.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llard, S. M., & Morris, M. L.(2003). The Family Life Education Needs of Midlife and Older Adults, *Family Relations*, 52(2), 129-136.

Bapoo, M. A., Tehseen, S., Haider, S.A., Yusof, M., & Motaghi, H.(2022). Sustainability orientation and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e mediating

- role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8(S2), 1-23.
- Baum, J. R., Locke, E. A., Smith, K. G.(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urgelman, R. A., Maidique, M. A., Wheelwright, S. C.(1996).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2)*. Chicago: Irwin.
- Byun, C. G., & Ha, H. H.(2018). The Influence of Behavior Patterns for Opportunity Discovery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21.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ae, Y. H.(2017).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 and Moderating Effect of Fear on Start-up,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Management*, 32(4), 165-183.
- Casson, M., & Wadeson, N.(2007). The discovery of opportunities: extending the economic theory of the entrepreneur. *Small Business Economics*, 28(4), 285-300.
- Choi K. S.(2019). *The Effe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type on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based start-up*,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
- Daliman, D., Sulandari, S., & Rosyana, I.(2019). The achievemen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Gender role, attitude and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controls mediation.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10(4), 392-426.
- De Koning, A.(2003). Opportunity development: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In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research* (6, 265-314).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Erickson, E. H.(1972). *Youth and the Life Cycle: Human Dynam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Selected Readings*. Allyn and Bacon, Inc., 340-342.
- Farmer, S. M., Yao, X. & McIntyre, K. K.(2017), The behavioral impact of entrepreneur identity aspiration and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2), 245-273.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ust, A., Wustrow, P., & Fueglisstaller, U.(2016). Entrepreneurial Information Search Behavior for Opportunity Recogni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76th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2016(1), 1-30.
- Prahalad, C. K. & Hamel, G.(1990). Strategic Intent, *Mckinsey quarterly*, 1990(1), 36-61.
- Han, M. S.(2020). *The Impact of Middle-aged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Ability and Social capital on the Start-Up Intention: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 and the Moderate Effect of Start-Up Support Servi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 Han, W. H.(2019). *The effect of satisfaction level with th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cess on the Entrepreneurial Alertness,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 Hallam, P. R. & Caldarella, P.(2014). Comparing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student achievement: Implication for practice,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42(4), 445-459.
- Havighurst, R. 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Second Edition)*. Guilford.
- Jang, H. C., & Kim, J. S.(2021).The Impact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6), 43-55.
- Jang, Y. M.(2018). *The Effects of Senio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Jung D. S.(2016). An Empe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rer Orient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9(4), 1565-1586.
- Jung, S. S., & Kim, D. H.(2019). A Study on the Impact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41-157.
- Kaiser, H. F.(1974). An index of faco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ang, B. S.(2020). *Impacts of Seniors'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Awareness, and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Kang, J. H.(2016).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Kim, C. H.(2022).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Digit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 Competencie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JKES*, 17(4), 97-122.
- Kim, J. H.(2018).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Kim, R. H., & Kim, E. K.(2019). The Impact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lobal Mindset. *JKES*, 14(2), 57-83.
- Kim, Y. T., & Heo, C. M.(2021).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2), 109-121.
- Kim, J. S.(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on the Establishment Performance-With the entrepreneurial capacity as a paramete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 Ko, Y., H.(2017). *A study on effect of the strategic thinking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Sungkyunkwan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22), *Survey of one-person creative companies in 2021* Retrieved (2022. 08. 21)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2745.
- Lee, G. M.(2018). *Influence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edness on Business Continu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H. S.(2012). *Regression Analysis*, Seoul, Giphyunjae press.
- Lee, H. Y., & Kim, J. E.(2019). Entrepreneurs'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 Meta-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3-24.
- Lee, J. K.(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Competency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ocal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Rol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Hoseo University.
- Lee, J. H.(2014). Status of Youth Entrepreneurship in Kore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1-8.
- Lee, J. R., & Jang, K. S.(2018).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43-60.
- Lee, I. H.(2014). *EasyFlo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Press.
- Lee, S. G.(201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mploye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Lee, S. K., Cho, C. B., & Chae, G. J.(2012). Relationship of the Work Care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Facto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Hotel Cook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5(4), 257-275.
- Lim, A. R.(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Lim, S. M.(2015).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middle-aged: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indsay, N., & Craig, J.(2002).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pportunity recognition, *The Journal of Private Equity*, 13-24.
- Lumpkin, G. T., Hills, G. E., & Schrader, R. C.(2001). Opportunity recognition, *A CEAE white paper*.
- Man, T. W., Lau, T., & Snape, E.(2008).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 investigation through a framework of competitive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1(3), 257-276.
- Mirabile, R. J.(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 development*, 51(8), 73-78.
- Morris, M. H., & Sexton, D. L.(1996). The concept of entrepreneurial intensity: Implications for compan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5-13.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 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Nielsen, J. E., Babie, V., Sttojanovic, Aleksic, V., & Nikolic, J.(2019). Driving Forces of Employe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Leadership Styl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Journal of Sustainable Business & Management Solution in Emerging Economics*, 24(3), 59-69.
- Minimol, M. C.(2021). Measurement and Validation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Scale. *Journal of Contemporary Issues in Business and Government*, 27(2), 3778-3794
- Oh, H. D., Choi, J. Y., & Noh, J. P.(2016).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35-48.
- Park C. W., & Kang, G. L.(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 Entrepreneurship and Digital Competence on Employment-Startup Recognitions. *JKES*, 16(2), 35-54.
- Park, S. H.(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SME start-up environmen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fear of business fail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ed effects of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mediated effects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Parry, S. B.(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Magazine*, 33(7), 48-56.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Politis, D., Winborg, J. & Dahlstrand, A. L.(2011), Exploring the resource logic of student entrepreneur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0(6), 659-683.
- Seo, S. Y.(2019). *Influence of Youth's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Shane, S.(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Cheltenham, U.K.: Edward Elgar.
- Shane, S., & Nicolaou, N.(2015). Creative Personality, Opportunity Recognition and the Tendency to Start Businesses: A Study of Their Genetic Predisposi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3), 407-419.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Staniewski, M. W.(2016), The contribution of business experience and knowledge to successfu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147-5152.
- Volery, V., Mueller, S., & Siemens V. V.(2015). Entrepreneur ambidexterity: A study of entrepreneur behaviours and competencies in growth-orien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3(2).
- Wagener, S., Gorgievski, M., & Rijdsdijk, S.(2010), Businessman or host? Individual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30(9), 1513-1527.
- Yang, K. A., & Ha, K.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ial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45-55.
- Yoo, H. S.(2016). *Effects of self-efficacy and family-related factors on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middle and older ages*, Doctoral Dissertation,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 Zapkau, F. B., Schwens, C., Steinmetz, H., & Kabst, R.(2015). "Disentangling the effe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8, 639-65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Middle-aged Elderly Office Workers

In Woo Choi*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using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s a mediator for middle and middle-aged office workers.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re classified into management competency, technology competency, business competency and funding competency. 222 copies of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middle-aged and elderly office workers residing across the country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simple mediating model with singular mediator using SPSS v22.0 and PROCESS macro v4.0.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mong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business competency and funding capacit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but management and technical competen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higher the business competency and funding competency. Second, it was found that all of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on the recogn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It was confirmed that management competency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d technology competence has the smallest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discovery of an opportunity recognizing opportunities for start-up is a prerequisite for entrepreneur.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mediates between the management competency, technological competency, business competency, funding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suggests that opportunity discovery by recognizing opportunities for entrepreneurship is a prerequisite for start-up.

As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inspire middle-aged and elderly office worke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 it is necessary to have indirect experience with education and to establish and promote a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financing.. Second, It suggests that education 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pportunity recognition. Third, it suggests that the discovery of opportunities to recognize opportunities for start-up is a prerequisite for entreprene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anual and conduct training on opportunity search, recognition, evaluation, and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opportunity development. Fourth,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lso, it is necessary to manage both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recognition at the same time. By presenting the practical directions that can be given differentially,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practical directions and policy establishment for the promo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office workers who can give vitality to the ecosystem.

Keywords: management competency, technology competency, business competency, funding competency,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Creative Liberal Arts, Hoseo University, consultancy@naver.com